韓國의 空間變化에 對한 政治地理學的 硏究

任　德　淳

一. 序論
二. 外力과 韓國의 空間變化
1. 空間關係의 實在
2. 空間變化
(1) 韓國에 대한 外勢의 地理的 諸槪念
(2) 空間變化의 期間區分
三. 結論

一. 序　論

空間變化에는 두 가지 槪念이 있다. 그 하나는 國家領域의 擴大縮小에 관한 領土變化이고, 다른 하나는 空間이 갖는 意味의 變化(variation in meaning)이다. 本硏究는 後者 즉 自然地理의 立場에서 볼 때, 靜的(static)인 韓國空間이 最近世 以後 外勢의 狀態變化에 따라 그 價値와 意味에 있어서 如何히 다이내믹(dynamic)하게 變化되어 왔나하는 것을 政治地理學의 諸槪念으로 解釋 考察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로써 韓國空間變化의 未來를 豫見하는 데에 하나의 도움을 주고자 한다.

時間과 場所 特히 前者에 따라 可變的인 空間을 學問의 對象으로 삼고 있는 機能的方法의 政治地理學[1]은 學的인 體系를 定立하는 데 있어서 그의 動的인 性質(dynamic quality) 때문에 큰 困難을 겪고 있다[2]. 이러한 形便에서 Stephen B. Jones의 Unified Field Theory of Political Geography[3]를 하나의 方法으로 해서 이 論文을 전개시켰다.

Jones의 政治地理學에서의 Unified Field Theory란 말은 1929年 및 1949年에 Einstein에 의해 처음 發表된 Unified Field Theory에서의 槪念[4]으로 物理學分野에서 統一場이라고 飜譯하여 쓰고 있다. Jones의 理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Field(場)槪念이 Derwant Whittlesey, Richard Hartshorne, Jean Gottmann의 思考와 그 위에 政治學의 諸槪念까지도 統合(統一)시킬 수 있다. 이 統合한다는 뜻에서 Unified란 말을 使用한다. 그러므로 Jones의 이 理論의 主軸이 되는 것은 場(Field)理論이다.

(2) 理論모델은 思考—地域 連鎖(idea-area chain)로서 政治的思考—決定—運動—場—政治的地域의 5槪念이 4個의 하이픈으로 連結되어 있다. 이것은 "같은 水面으로 이어진" 一個의 湖水連鎖(a chain of lakes)이기 때문에 ① 政治的 思考에서 政治的 地域에로 連鎖作用이 일어나고, ② 政治的 地域에서 政治的 思考에로 反對 方向의 逆作用이 일어날 수도 있다. ①의 경우가 統制作用(controlling)이고 ②가 條件作用(conditioning)이다.

그러나, 이 連鎖(chain)는 단지 政治地理學과 政治學의 理論을 統合하여, 地域과 過程(region and process), 思考와 地表(ideas and earth's surface), 形態와 機能(morphology and function)간의 相互關係를 追求考察하면서 具體的인 地域을 時間과 空間的으로 說明하려는 하나의 端緖(a lcue to explanation)로 提示한

1) 2次戰前까지는 政治地理學이 주로 國家의 形狀·크기·位置·國境에 관계되는 地形地物 등 固定的인 것에 重點을 두어 이른바 形態的方法(morphological approach)을 취했으나, 以後로는 政治學, 行動心理學, 힘의 作用, 政策樹立者의 決定作成(decision-making) 등을 크게 고려한 機能的 方法(functional approach)을 취하고 있다. 이에 큰 影響을 준 것은 Richard Hartshorne의 "The Functional Approach in Politic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以下 Annals of A.A.G 라함), Vol. XL, No.2, 1950, pp.95~130이다. 2) Hans W.Weigert and Others, *Principles of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1957, p.18. William F.Christian, "Geography and Nation Making," *Global Geography*(Renner ed.) New York, 1945, pp.563~564. 3) Stephen B.Jones, "A Unified Field Theory of Political Geography," *Annals* of A.A.G, Vol. XLⅣ, No.2, 1954, pp.111~123. 4) 元來 Einstein의 理論은 i) 그 目的이 相對性理論과 量子論간의 다리를 놓는 데 있고, ii) 自然의 調和와 一元性(Uniformity)를 믿음으로써 物理學法則의 單一體系를 이룩하였고, iii) 이 理論의 至大한 價値는 첫 單語 Unified의 含蓄에 있으니, 곧 物理學的 世界內의 諸主要槪念의 統一을 의미하는 것이다. *cf.*Lincoln Barnett, *The Universe and Dr. Einstein*, New York, 1957, p.16, pp.119~120.

것이다. 따라서 그 適否與否는 地域의 性格 關係의 如何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장(場; Field)은 元來는 理論物理學의 用語이다. 이 理論의 基本槪念은 다음과 같은데, Kurt Lewin이 이를 心理學에 導入·使用한 以後 社會科學分野에서도 이 方法을 쓰고 있다.

1) 場은 外力을 받아 變하는 것이다. 즉, 外力線에 의한 하나의 空間이다[5].

2) 場은 주어진 時間單位內의 주어진 空間이다[6].

Jones는 思考, 決定, 運動을 場變化의 先行要因으로 規定하였고, 그 結果로서의 空間을 政治的 地域으로 보았다. 이에 本稿는 Jones의 理論을 參照하여 考察하며, 이를 위해서 몇 개의 前提와 制限을 두면서 考察한다.

① 韓國의 空間을 場으로 보며

② 周圍國家들의 對韓政策 및 決定(decision)에서 運動(movement)을 發見코자 하며(Fig. 1), 이를 위해서는 韓國 周圍國家의 事情을 重點的으로 살핀다.

③ 그리고 위 2)의 變化가 歷史的으로 考察되겠는데, 方法上 重要한 戰爭을 中心으로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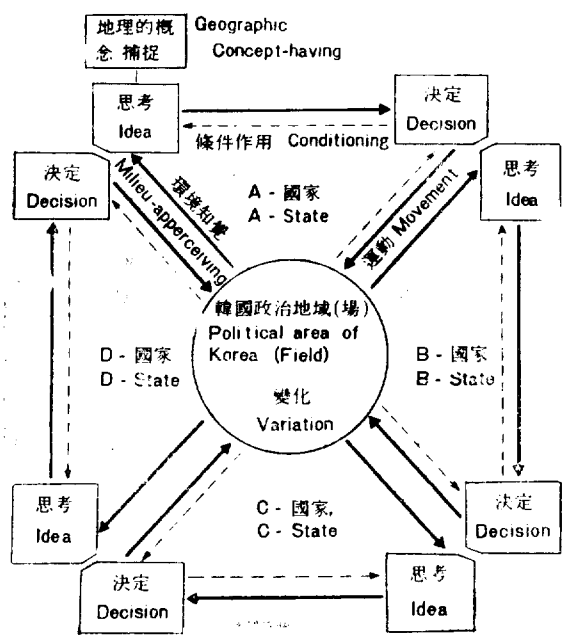


Fig. 1 地域, 思考, 決定, 運動과 場變化와의 關係

戰爭前後에 各國의 土地에 대한 地理的 槪念[7]이 가장 明確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④ 考察 對象 期間은 日本帝國主義가 韓國의 門戶를 開放시켜 植民主義對象地로 삼으려 했던 1876年(丙子修好條約)부터 오늘날까지로 한다.

위의 資料로는 舊韓末條約彙纂(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編 上·中·下卷, 1964~65) 중의 各種條約 및 協定, 文書, 關係論文 및 韓國史(李瑄根, 最近世篇 1961 現代篇 1963) 등을 使用했다.

二. 外力과 韓國의 空間變化

1. 空間關係의 實在

"空間關係(space relation)의 元來의 뜻은 position이나 situation의 어느 한 槪念보다도 더 重要하다……中略……空間關係란 他場所 또는 他地域과의 關係에서 보여지는 場所 혹은 地域의 位置를 뜻한다[8]." 그러나 이 用語의 重要性은 槪念 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國家間의 關係가 條件化(conditioned)된다[9]는 데에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節에서는 韓國의 歷史的·政治的 展開에 있어서 基本要素가 되어온 空間關係의 實在가 考察될 것이다.

(1) 半島的 實在 韓國은 Asia 北東部에 位置하는 작은 半島이다. 半島는 海陸關係에서 볼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半分離性(semidetachment) 때문에 分離와 結合의 두 機能을 갖는다. 어느 것이 優勢하게 作用하는가는 차지하고 있는 國家와 그 周圍國家의 自然的 및 社會的 環境要因(人口, 技術, 兵器體制, 經濟發達態度및 價値[10]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分離作用은 孤立可能性(isolation potential)을 주고, 結合作用은 디딤돌(stepping stone) 내지 橋梁(bridge)的 役割을 賦與할 수 있다.

半島는 3面이 바다와 接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周邊的이다. 이 周邊性(marinality)은 韓半島에 1) 陸海兩方으로의 成長尖端[11](forward point of growth)的性格 2) 大陸機會와 海洋機會[12](continental and maritime opportunities) 중의 어느 것을 줄 수 있다. 半島가 面積이 좁을 때에는 附屬性을 나타낸다. 韓半島는 世

5) 朴益洙, 科學의 哲學, 서울, 1957, pp.116~126. 6) Paul K.Ryu, "Field Theory in the Study of Cultures; It's Application to Korean Culture," Univ. of Hawaii Press, 1962, p.652. 7) 地理的 槪念에 對해서는 George T. Renner, "Geography and War Strategy," op.cit. (Rennen ed.) pp.463~465. 참조. 8) George T.Renner, *Human Geography in the Air Age*, NewYork, 1942, p.40. 9) Richard Hartshorne, "What is Political Geography,"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Jackson, ed.), Engle wood cliffs, 1964, p.56. 10) Harold and Margaret Sprout, "Geography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an Era of Revolutionary Change," ibid., p.36. 11) Eric Fischer에 의하면 成長尖端의 定義는 나무의 가지나 軍隊의 前進勢力에 比喩되는 것으로서 "成長의 前哨點"이다. Hans W.Weigert and Others, op. cit., p.74 참조. 12) Samuel Van Valkenfurg, *Elements of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1942, pp.93—97.

界最大의 Asia大陸에 比해 너무나 작다. 이 事實은 隣接한 領土的 大國에게 錯視現象을 불러 일으켜 주기 쉽다.

(2) 空間的 中間 韓國은 中國, 日本, 蘇聯의 3國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Indo-China도 空間的 中間을 차지하는 半島이기는 마찬가지이나, 空間의 動的인 면에서 볼 때에는 差가 크다. Indochina 周圍의 나라가 中國 외에는 모두 列强의 植民地였고, 本國自體가 아니었는데 대해서 韓國周圍의 3國은 모두 極東의 强國이고, 또 그 땅들이 本國自體이었다. 이는 韓國의 空間研究에 있어서 크게 注目되어야 할 事實로서, 前述한 半島的 實在와 함께 地理的 環境의 가장 큰 基底를 이룬다.

(3) 東亞의 第4弧 東亞의 諸半島나 列島는 Alaska로부터 赤道地方에 이르기까지 弧狀配列로 자리잡고 있으며(Fig. 2) 5個의 弧로 나누어진다. 弧狀列島는 對岸의 陸地勢力의 外向을 遮斷하는 機能을 갖는데, 韓國도 第4弧(韓半島—九州—琉球列島)上에 있으면서[13], 蘇聯의 一部와 中國本土를 外廓에서 包圍 遮斷할 수 있다.

以上으로 靜的인 立場에서 韓國의 空間關係와 그의 可能한 機能을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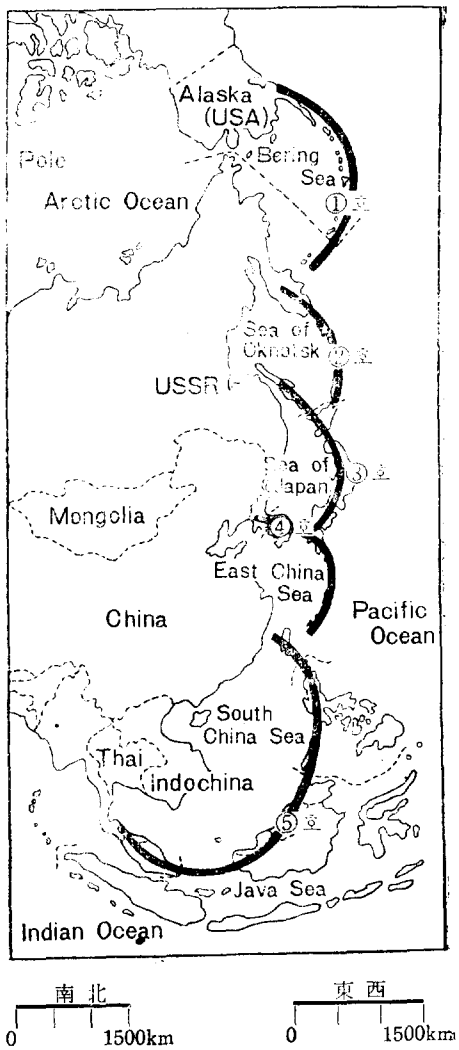
2. 空間變化

韓國場의 時間的 變化를 發見코자 할 때 外勢와 關聯되는 몇 가지 認識이 必要하다.

i) 場은 外部 勢力線에 의한 空間概念인 까닭에 外部로부터 힘의 向해옴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外勢의 向韓을 벡터(vector)의 作用으로 본다.

ii) 벡터의 向韓이 있으려면 그 前에 이 곳 韓國空間이 어떤 意味든간에, 價値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價値를 環境의 價(valence)라 하며, 正價(positive valence)일 때 벡터가 强하고, 負價(negative valence)일 때 弱하든가 전혀 作用치 않는다.

iii) 評價前에 또 考慮해야 할 것은 周圍列强의 "決定 作成者가 環境(韓國)을 어떻게 생각하느냐"[14] (how the decision-maker imagines the milieu to be)의 問題이다. 왜냐 하면, 사람은 知覺하는 대로 그 環境에 대해서 反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思考—決定—運動以前에 知覺對象으로서의 韓國이 重要하다.



縮尺은 經緯度에 따라 다름.
韓國中心으로 定하면 위와 같음.
北極方位正距圓法(North Polar Azimuthal Equidistant Projection)

Fig. 2 東亞의 諸弧

(1) 韓國에 대한 外勢의 地理的 諸概念

1) 壬午軍亂(1882) 當時

① 中國 丙子胡亂(1636~37)은 淸韓關係를 兄

13) Hans W.Weigert and Others, op. cit., pp.229~231. 14) Harold and Margaret Sprout,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op.cit. (Jackon ed.), p.67 Sprout는 이를 認識的行動說(cognititive behaviorism)이라고 했는데, 그가 내세운 人間環境關係(manmilieu relationships)의 5假說(environmental determinism, free-will environmentalism, environmental possibilism, cognitive behaviorism) 중 가장 有力한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說은 그自身이 말한 것처럼 場心理學과 認識理論(cognitive theory)의 暗示를 많이 받는 것이다.

弟의 그것에서 君臣의 關係로 바꾸었고, 以來 淸은 宗主國으로 君臨해 왔다. 그러나 阿片戰爭(1839~42)이후 外勢의 壓力으로 國力이 위축되어 갔다. 그러던 중 1876(丙子)年 韓日間의 修好條約 締結(同條規1款, 朝鮮國自主之邦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15])로 말미암아, 老大國은 對韓關係에 있어서 처음으로 日本에게 挑戰을 당하였고, 爾來 韓國의 對淸一邊關係는 形式上으로나마 무너졌다. 그리고 1882年 5月의 韓美修好通商條約을 비롯해서, 그후 西部유럽諸國과의 通商條約 締結로 韓國의 外交關係는 完全히 多邊的(multilateral)으로 轉換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韓國의 對外政策이 大陸指向에서 서서히 海洋 指向으로 바뀔 수 있는 可能性을 提示해 주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882年 6月에 韓國에서 軍亂이 일어났고, 淸은 이를 契機로 韓國에 派兵하였다. 이는 實로 그 동안에 일어났던 韓國에서의 宗主權의 흔들림을 바로 잡기 위하여 취한 힘의 向韓이었다. 淸은 이 軍亂을 通하여 弛緩되려 했던 韓國의 大陸指向을 繼續 確保하였다.

이처럼 淸이 그 大陸指向을 끝내 確保하려 한 것은 韓國을 그 周邊性에 着眼하여, 廣大한 邊方保護를 위한 하나의 防衛前地[16](glacis)로 삼아 왔던 것인데, 이의 확보가 危殆로와지자 이를 잃지 않으려고 취한 政治的 行動이었다(Fig. 3).

② **日本** 島嶼性과 Asia大陸에 相對的인 數個의 島嶼的 位置를 根本的 地理要因으로 갖고 있는 日本[17]은 1868年의 이른바 明治維新을 거쳐 유럽아메리카型의 資本主義와 近代的인 國民國家(nation-state)體制로 轉換하였다. 以後 帝國主義的인 利害關係의 벡터는 Asia大陸에서 日本쪽으로 突出한 韓國에 向해왔다. 바로 그 첫 運動이 韓國과의 丙子修好條規(1876)의 强壓的 締結이었다. 이 締結을 계기로 韓國을 將次 帝國主義 政策의 對象地로 삼으려 한 것이다. 그리고 仁川, 元山 두 港口의 開港(釜山은 이미 開港)도 規定했는데, 이는 韓半島를 包圍할 수 있는 重要한 세 港口를 日本이 經濟的 및 軍事的 侵略의 上陸據點(beachhead)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壬午軍亂을 契機로 淸의 勢力이 韓國에서 점차로 높아지자 日本은 차츰 이에 對抗할 氣勢를 가다듬었다. 그 底意의 一端을 天津條約(1885.4)의 主文一部를 通하여 보면;

i) 淸日兩國은 4個月 期限으로 朝鮮駐屯兵을 全員撤收할 것.

ii) 將來 朝鮮에 變亂이나 重大事件이 발생하여 一國이 派兵할 때에는, 그에 앞서 쌍방이 文書로써 通知하고, 事件이 鎭定되면 卽時 兵力全部를 撤回할 것[18]등이다.

이 條約은 어느 정도 淸日의 勢力均衡을 意味하는 條約[19]인데, 後에 日本은 이 勢力均衡을 自己側에 有利하도록 깨뜨리려고 努力했으며, 이 노력은 近代産業育成을 基礎로 해서 漸次 成熟되어 갔다.

③ **러시아**(Russia) Peter大帝(17世紀末) 以來의 積極的인 暖海(warm water)獲得政策과 膨脹主義(expansionism)로 淸이 점점 약해져 감을 利用하여, 1860年까지에는 우수리(烏蘇里)江 以東의 沿海州를 獲得하여, 그 곳에 東方의 支配(the domination of east)라고 하는 重要한 뜻의 港口, Vladivostok를 開設[20]하는 同時에 韓國과도 직접 國境을 接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지금까지 韓國에 向해 오던 兩外力線 外에 또 하나를 더 添加시키게 될 수 있는 重大事件이었다.

그러나, 그뒤 20餘年間 韓國에 대하여서 別로 큰 關心을 두지 않다가, 1884年 7月의 韓露 通商條約 締結을 契機로 漸次 關心이 뚜렷해지기 始作했다. 그後의 英軍의 巨文島 占領事件(1885.3)과 淸日間의 天津條約은 Russia를 더욱 刺戟하였다.

한편 韓國政府는 이즈음 親露의 傾向을 나타내기 始作했고, 兩國間에는 다음과 같은 密約事件이 일어날 정도로 Russia는 韓國政府의 信任도 얻게 되었다. 1886年 6月의 密約의 主要內容을 보면;

"……弊邦偏在一隅 雖獨立自主 而終未免受轄他國 我大君主深爲恥悶……永不受他國轄制 惟不免有所憂忌 弊邦與貴國……有脣齒之勢 與他自別 深望貴大臣 稟告貴政府 協力默允 竭力保護 永遠勿違……或他國有所未叶 望貴國派兵艦相助……大朝鮮國四百九十五年丙戌七月 日 奉勅內務總理大臣沈舜澤 致大俄國欽命大臣韋貴下"[21]

15) 朝日修好條規朝鮮側原文, 1876.2,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編, 舊韓末條約彙纂 上卷, 1964, p.12. 16) 國家가 그의 自然的形狀너머로 二重防衛(double protection)를 확보키 위해서 領土를 擴張할 때, 이런 型의 領土를 glacis라 한다. 그리고 이같은 것은 Austro-Hungarian 帝國以來 오늘날까지 廣大國에 의해 構築되어 왔다. Samuel Van Valkenburg, op. cit., p.35. 참조 17) H.J.Wood and Charles A.Fisher, "The Far Eatern Margins of Asia," *The Changing Map of Asia* (East and Spate, ed.), London, 1958, p.321 18) 淸日天津條約 및 附屬公文本文, 1885, 4. 舊韓末條約彙纂 中卷, p.144 19) 申基碩, 東洋外交史, 서울, 1956, p.247 20) H.H.Fisher, "China and the Soviet Union," *Foundations of National Power* (Sprout, ed.), New York, 1952, p.388 21) 盧啓鉉, "韓露外交關係研究", 韓國外交史研究(同一著者), 서울, 1968, pp. 32~33

이 글을 볼 때, 韓國의 政策決定者(decision-maker)는 自國空間의 周邊性을 正視, 被結合의 憂慮를 가진 가운데, 늘 他의 屬國化를 막으려 애썼음을 알 수 있다. 그 한 方便으로서 相接한 大國 Russia를 保護國으로 하여 永遠히 이 나라에 依存함으로써 永存키를 바란 것이다. 反面 Russia는 이때까지도 韓國에 대해서 保護라든가 領土的 慾望 같은 特別한 積極性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여러 理由 中에서도, 特히 交通手段은 結合을 위한 强力한 求心力이 되는데, 當時로서 Amur江의 微弱한 河運이 먼 空間을 잘 克服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22]. 1888年 4月에 열린 Russia 極東政策 審議會議의 主要決定이 이 事情을 잘 表現해 주고 있으며 그 主要 골자는 다음과 같다.

i) Russia가 朝鮮을 取得하는 것은 無益할 뿐 아니라, 不利한 結果를 招來한다.

ii) 朝鮮이 Russia에게 重要한 戰略的 據點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에 대한 防禦의 困難이 利點보다 더 크다.

iii) 朝鮮은 너무 멀며, 그의 긴 海岸線을 防禦하는 것은 더욱 큰 負擔이 된다.

iv) 朝鮮에 대한 淸의 保護 監督이 兩國의 旣存 傳統關係(筆者註 從屬關係)의 維持에 限定된다면 Russia는 이에 同調할 것이다.

v) Russia는 朝鮮의 領土保全의 侵害를 防止하는 政策에 限定해야 한다[23].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건대, 1884年 以來 Russia는 韓國에서 現狀維持(status quo)를 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 淸日戰爭(1894~95)當時

① 日本, 中國 韓國政府가 東學亂의 鎭定을 위하여 淸軍을 불러 들이자, 日本도 前述한 天津條約에 依據하여 韓國에 派兵하니, 淸日兩國은 이 땅에서 銳利하게 對峙되었다. 1890年에 恐慌을 겪고 1893年부터 景氣上昇[24]을 이루던 日本은 1894年8月에 結局 對淸 宣戰 布告를 함으로써 戰爭을 일으켰고, 여기서 淸이 敗하여 이듬해 4月 馬關(下關)條約에 의하여 戰後處理를 하게 되었다. 이 條約으로 日帝는 오랫동안 빌려오던 淸勢力을 韓國서 完全히 몰아내고 親日政權을 確保, 一切를 掌握하였다. 또 장차의 大陸占據의 跳躍臺인 遼東半島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馬關條約의 主要內容을 보면;

i) 朝鮮國의 完全無缺한 獨立의 確認, 淸國에 대한 貢獻·典禮 등도 完全히 이를 廢止.

ii) 遼東半島, 臺灣, 澎湖島 등을 日本에 割與[25] 등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淸日戰爭은 韓國에서는 勿論, 極東의 勢力分布 變化上 轉換點을 이루었다. 이러한 뜻에서 馬關條約은 政治地理學上 重要한 條約이라 할 수 있다.

② 러시아(Russia) 日本이 遼東半島를 割取하게 되자, Russia는 獨·佛·露의 3國聯合勢力으로써 日帝處事에 一擊을 加하였다(三國干涉). 當時 Russia에게 있어서 滿洲는 valence가 몹시 큰 곳이어서, 아직 Siberia鐵道도 完成되지 않아서, 核心地帶(core)와의 結合力도 크지 못한 處地였지만, 不遠한 將來에 i) 經濟的 特惠 ii) Vladivostok에의 지름길 iii) 暖海港의 利用 등 主要利害關係[26]가 얽혀 있는 地域이었기 때문이다.

이 干涉 때문에 日本은 苦心끝에 빼앗은 遼東半島를 淸에게 還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日本은 어떠한 犧牲을 치르더라도, 韓國만은 Russia에게 내맡길 수 없어서 親露의 巨頭 閔妃를 除去하여 韓露結合을 斷絕시키려 했다[27]. 日本의 閔妃殺害(1895.10)後 오히려 Russia의 立場이 더 好轉되어 1896年 2月에는 高宗마저 俄館(Russia 公使館)으로 避身하게 되니 以後 Russia의 勢力은 韓國에서 絕頂에 달했다. 專制君主國 體制下에서 君王은 絕對的인 上部構造(superstructure)인 까닭에, Russia가 國王을 獨占한 것은 그 君主國의 全體支配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이 일은 Russia가 韓國과 國境을 接한지 36年만에 이룬 백터의 最强化로서, 將次 韓國場의 變化는 露日兩勢力線의 强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有力한 前兆이었다.

1896年 5~6月 Moskva에서의 露日秘密會談 席上에서 日本은 Russia에게 韓國을 38°線에서 分割하여 兩

22) Stephen B.Jones는 Jean Gottmann의 循環(circulation)槪念으로 交通을 規定하고, 國家의 結合統一에 重要한 因子로 삼았다. Stephen B.Jones, op. cit., p.114 참조. 그리고 Richard Hartshorne은 距離를 하나의 遠心的要因(centrifugal factor)으로 보았다. Richard Hartshorne, "The Functional Approach in Political Geography," Reprinted in op. cit. (Jackson, ed.), p.87. 참조 23) 朴俊圭, "韓末의 對外關係~1880年代의 列强의 對韓政策을 中心으로~" 國際政治論叢, 1輯, 韓國國際政治學會, 1963, pp.41~43 24) 堀江保藏, 日本經濟文化史, 東京, 1943, pp.155~156. 25) 淸日講和條約本文, 1895. 4. 舊韓末條約彙纂 中卷, p.155. 26) Christopher Rand, "Soviet Security in Asia," op. cit. (Sprout ed.), p.359 Robert J. Kerner, "The Soviet Union as a Sea Power," *New Compass of the World* (Weigert and Others ed.), New York, 1953, p.116. 이 論文에서 Kerner는 Russia의 極東에서의 關心은 經濟보다도 交通關係에 두었다고 했다. 즉, 太平洋에의 接近을 確保하는 것이라고 했다. 27) 李瑄根, "韓日關係의 歷史的 回顧" 國際政治論叢, 2輯, 1964, pp.36~37.

國이 그 北과 南을 차지하자고 提議[28]했으나, 다음과 같은 理由로 Russia는 이를 拒絕하였다. i) Russia가 優勢한 때이고 ii) 韓國은 Russia帝國 將來의 組成地域으로 地理的, 政治的 條件으로 보아 Russia에 依해 豫定된 版圖라고 생각했으며 iii) 이 까닭으로 韓半島의 南端을 日本에게 넘겨주면 戰略및 海軍軍事關係로 보아 韓國의 가장 重要한 地域을 永遠히 抛棄하게 되어 行動의 自由를 스스로 束縛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29].

Russia는 韓國의 戰略的 價値를 높이 評價하여 領土化할 것을 意圖하였다. 또 皇帝 Nicolas 2世도 韓國東南部의 不凍港과 Russia本土가 直結되는 韓國土地를 占有해야 한다고 主張했다[30]. 이러한 評價는 1888年의 그것과는 判異함을 보여준다. 이제 不凍港을 必要로 하는 Russia가 暖海가 있는 韓國의 南部를 日本에게 넘겨줄 리가 없는 것이다.

壬午軍亂(1882)前後에는 그렇게 明確히 나타나지 않던 露日兩國의 韓國에 대한 地理的 槪念이 淸日戰爭으로써 分明히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淸國에게 있어서는 前이나 마찬가지로 韓國은 하나의 防衛前地였는데, 이 戰爭의 敗北로 因해 그 邊方이 대단히 危殆롭게 되었다. 日本에게 있어서는 滿洲로의 陸橋(land bridge)로 여겨졌다. 日本은 이 機能을 自國만을 위해서 發揮토록(Fig. 4) 韓國을 淸으로부터 完全 獨立시켰으며, Russia는 韓國을 그들의 海洋機會의 根據地로 삼았다.

3) 露日戰爭(1904～5)當時

① Russia Russia는 東淸鐵道(Chinese Eastern Railroad) 敷設協定(1896. 8)의 餘勢를 몰아, 1898年 4月에는 旅順과 大連을 占有, 그 租借權(25年間)을 獲得하여, 이 港口들을 東淸鐵道에 連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Russia가 滿洲를 勢力圈化하는 데 成功하자 韓國은 滿洲보다 相對的으로 낮은 valence로 인하여 낮은 評價를 받게 되었다. 즉, Russia는 旅·大租借 代身, 日本에게는 韓國에서의 經濟的 特殊地位를 認定해 주고[31], 韓國에서 一旦 後退했던 것이다. (이 일은 1896～98年間 韓國에서 最强勢이던 Russia의 地位가 日本에게로 넘어가는 決定的 契機였다)

Russia의 滿洲 勢力圈化에 威嚇을 느낀 日本은 英國과 同盟을 맺음(1902. 1)으로써 極東에서 Russia를 牽制하였고 英國은 이의 代價로 日本에게 韓國에서의 特殊 利益을 認定해 주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Russia는 1903年 4月에 龍岩浦를 强占, 그 租借를 要求하였다. 이 事件으로 露日의 對立은 露骨化되었고, 이를 緩和시키려는 Russia側의 마지막 提案이 失敗로 돌아가자, 마침내 힘의 最後手段(ultima ratio of power)인 戰爭[32]으로 對決하게 되었다. Russia側의 그 提案(1903. 10)을 보면;

i) 朝鮮에서의 經濟的·政治的 優越權을 承認하되 軍事施設은 朝鮮沿岸에 設置 않기로 할 것.

ii) 朝鮮을 39°線에서 分割하여 그 以北을 中立地帶로 할 것.

iii) 滿洲와 그 沿岸은 전연 日本의 利益權 以外임을 承認할 것[33].

곧 滿洲는 Russia의, 39°線以南의 韓國은 日本의 各勢力範圍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最小限 韓國의 北部를 Russia國防을 위한 遮斷地(cordon sanitaire)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解釋될 때 韓國은 將來 自己領土가 될 滿洲의 保護를 위한 하나의 防楯으로 삼을 땅이었다.

② 日本 日本은 1903年부터 바로 前의 恐慌狀態에서 回復되고[34] Russia와 對決할 수 있는 經濟的인 힘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形便에서 前述한 英日同盟, 美國의 支持, 滿洲및 韓國에 대한 높은 valence가 複合되어 日帝의 先攻으로 露日戰爭이 始作되었다. 이 戰爭에서 Russia는 空間 克服의 困難(遠距離間의 物資·兵力輸送, 單線鐵道인 東鐵의 機動性微弱[35]으로 敗戰하였다. 日本은 Portsmouth 講和條約(1905. 9)에서 i) 韓國에서의 日本의 政治·軍事·經濟上의 利益承認, ii) 遼東半島의 租借權 및 長春·旅順間의 鐵道를 日本에 委讓, iii) 北緯 50° 以南의 Sakhalin을 日本에 讓與[36]등 重要 利權을 取함과 同時에 極東의 覇者가 되었다.

露日 間의 戰爭은 滿洲라고 하는 "한 地域"에 對해서 두 나라가 서로 다른 地理的 槪念을 가진 結果[37]로 發生한 것이다(淸日戰爭 때도 이 原理가 作用하였다.

---

28) 朝鮮問題에 관한 日露莫府議定書槪要, 舊韓末條約彙纂 中卷, pp.179～180. 29) 李瑄根, 韓國史, 現代篇, 서울, 1963, p.765, 申基碩, op.cit., p.325. 30) 趙淳昇, "三八線의 誕生, 韓國의 悲劇", 思想界, No.124, 1963, p.140 31) 韓國問題에 관한 日露議定書, 1898, 4에 依해서 舊韓末條約彙纂 中卷, pp.186～187. 참조. 32) E.H. Carr, "Forms of Power," op. cit. (Sprout, ed.), p.44. 33) 李瑄根, 韓國史, 現代篇. p.903. 34) 堀江保藏, op,cit., p.156. 35) Harold and Margaret Sprout, "Post-mortem on the Japanese Empire," op.cit. (idem. ed.), p.634. Samuel Van Valkenburg, op. cit., p.220. George T. Renner, *Human Geography in the Air Age*, pp.195～196. 36) cf. 日露講和條約本, 1905. 9 舊韓末條約彙纂 中卷 pp.218～220. 37) George T. Renner, "Geography and War Strategy," op.cit. (idem.ed.), p.465.

그 때의 "한 地域"은 韓國이었음). 滿洲는 Russia에게 海洋國 指向을 위한 南下政策의 훌륭한 培養地였고, 日本에게는 大陸指向을 위한 生産力과 經濟性이 높은 地域이었다. 이때 兩國의 强한 벡터는 韓國보다 滿洲로 향했고, 따라서 戰爭의 主原因도 滿洲에 있었다.

韓國은 當時 日本에게 있어서 重要한 滿洲로의 回廊(corridor)인 까닭에 京釜·京義線 敷設에 拍車를 加해지게 되었다[38]. 回廊이란 成長尖端이 他地域과 接觸을 이룰 때 指稱되는 것[39]으로 대개 陸橋가 他國所有的인데 대해 다분히 自國所有的이다. 그리고 成長尖端이나 陸橋보다는 훨씬 積極化된 것이다.

③ 美國 美國의 벡터를 考察하려면, 우선 그의 極東 政策을 살피는 것이 必要하다. 美國은 自國의 國家利益(national interest)과 國家目標(objective of state)를 위해 極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政策을 1830~1840年代까지 100餘年間 展開해 왔다.

i) 商業~예를 들면, 羊毛의 對絹交換
ii) 美國貿易業者와 宣敎師의 保護 및 宗敎的 寬容
iii) 中國 政府의 領土的 및 行政的 統一의 維持, 君主政治이든 共和政治이든 간에
iv) 門戶開放(open door)~他國 事業家 및 會社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로 美國의 事業家 및 會社에 대한 均等한 機會.
v) 極東에서의 勢力均衡(balance of power)[40]

韓美間에 正式交涉이 이루어진 것은 1882年 5月의 修好通商條約 以後이고, 對極東積極策을 쓰기 始作한 것은 1898年(Philippines 占領)부터이었다. 이 해는 바로 美國의 資本主義가 高度成長하여, 特히 Asia에서 그 市場을 確保하려는 門戶開放政策(open-door policy)이 採擇된 해이다[41]. 이러한 때인 만큼, 極東版圖를 가름하게 되는 露日戰爭은 門戶開放政策上 至大한 關心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日本이 美國 代身 싸워 이겼으니 Roosevelt는 기꺼이 日本의 韓國支配를 認定하는 立場에서 Portsmouth 講和條約(1905. 9)의 仲裁를 맡았다. 이 條約은 Taft—카쓰라(桂)協約[42](1905. 7)에 이어서 日本의 韓國支配를 承認한 美國의 公的인 態度이었다.

이처럼 美國은 韓國土地에 대해서 높은 valence를 認定치 않고 對蘇代理戰爭에 대한 報答品으로나 考慮할 程度였다. 美國의 國家利益上 韓國은 地理的으로 보아 너무 멀고, 兼하여 中國처럼 經濟性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④ 日本의 韓國合併 이제 日本은 韓國問題에 관한한 하나의 障碍物도 없게 되었다. 섬나라인 日本이 大陸과의 사이에 있는 東海의 湖水化에 成功하고, 黃海의 制海權도 掌握했으니 이런 境遇에 可能한 島嶼核(island neuclei)의 對岸支配(controlling the opposite coast)가 順調롭게 進行될 수 있게 되었다. 거기다가 英·美로부터는 韓國 支配까지도 認定받았다. 日本은 任意로 合併에 着手할 수 있었고, 그 重要節次의 하나가 乙巳保護條約[43](二次 韓日協約, 五條約)이었다. 이 條約은 "形式的으로는 保護條約이었으나, 實質的으로는 合併條約[44]"이었다.

그리고 合併條約[45](1910. 8)은 이 條約에 의해서 "韓國全部에 관한 一切의 統治權"이 日本에게 讓渡되었다는 事實外에는 節次的인 問題에 不過했다. 이로써 韓國空間은 日本의 回廊에서 回廊機能을 自體內에 가지고 있는 領土로 바뀌었다(Fig. 5).

그러면, 其間의 韓國事情은 어떠했나? 弱勢인 韓國은 그가 가지고 있는 空間關係의 實在에 副應, 獨立國으로 存續코자 事大交隣이란 어쩔 수 없으면서도 賢明한 對外政策으로 500年을 버티어 왔다. 그러나 19世紀 中葉을 前後해서, 그後 繼續 일어난 國內的 派爭과 經濟力의 微弱은 門戶開放(1876) 以來 帝國主義 外力線이 쉽게 뻗쳐 올 수 있도록 韓國을 弱體化시켜 놓았다.

Richard Hartshorne에 依하면, "한 國家가 一個의 名稱, 一個의 政府를 가지며 國際條約이 一個의 國家로서의 存在를 認定하여, 그 領土的 限界를 規定해 준다는 事實, 이들 全部로서 一個의 國家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一個의 國家가 되기 위해서는 遠心力(centrifugal forces)의 常存에도 不拘하고, 그 國家의 地域을 統合할 수 있는 求心力(centripetal forces)이 確立되어야 한다[46]. 그리고 그 求心力은 바로 國家의 政治 理念이며, 同時에 國家의 存在理由(raison detre)가 되는 것[47]이다(求心力=國家理念=國家의 存在理由)

38) 露日間 開戰以後 京釜線 1日平均進度는 1.6 km, 京義線 全期間 中 1日平均 0.73 km였음. 대한민국 교통부, 한국교통六十년약사, 1958, p.18, 28. 참조. 39) Hans W.Weigert and Others, op.cit., p.77. 40) Walter B. Norris, *Visual Outline of American Foreign Policy*, Philadelphia, 1949, p.77. 41) Ibid., p.83. 42) The Taft-Katsura Agreement, July 1905, 英文原文, 舊韓末條約彙纂 中卷, pp.213~214. 43) 韓日協商條約韓國側原文, 1905. 11, Ibid., pp.78~79. 44) 이는 韓國政府의 公式的 表現임. 대한민국 정부, 한일회담 백서, 1965, p.176. 45) 韓日合併에 關한 條約 韓國側原文, 1910 8. 舊韓末條約彙纂 上卷, pp.102~103. 46) Richard Hartshorne, "The Functional Approach in Political Geography," op. cit. (Jackson ed.), p.91. 47) Ibid., pp.9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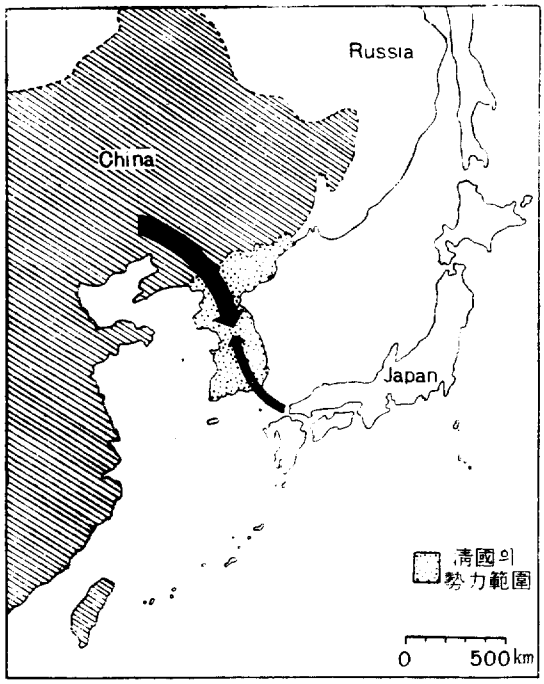


Fig. 3 壬午軍亂(1882)과 그 후의 韓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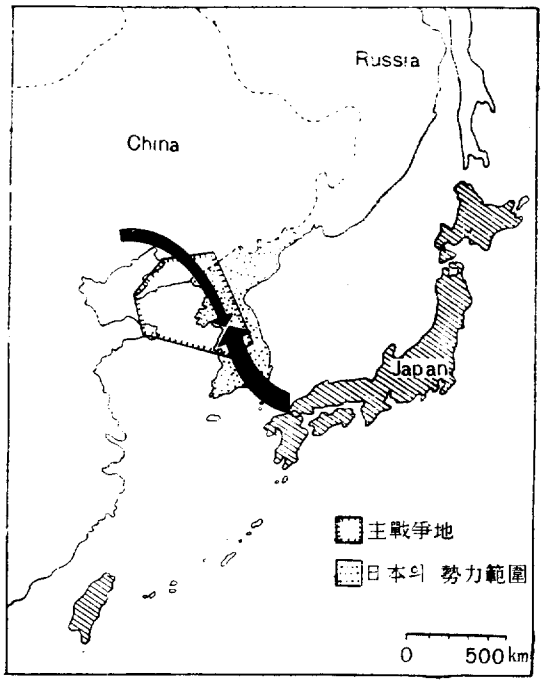


Fig. 4 淸日戰爭(1894~95)과 그 後의 韓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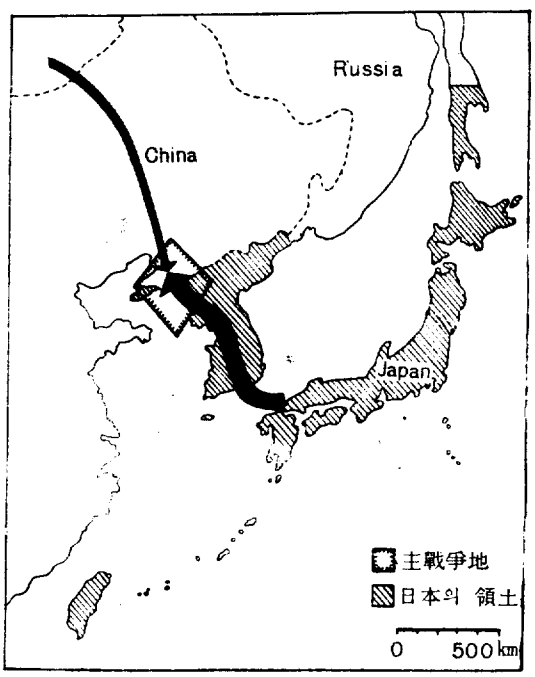


Fig. 5 露日戰爭(1904~05)과 그 후의 韓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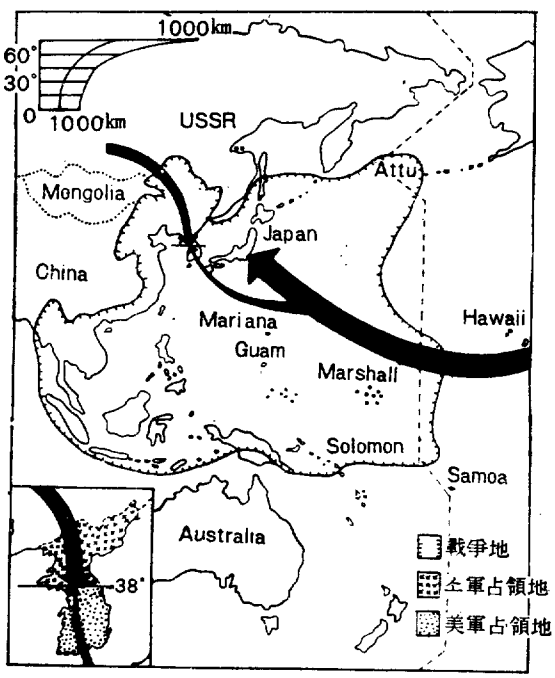


Fig. 6 太平洋戰爭(1941~45)과 그 後의 韓國

回顧컨대, 當時 韓國은 統合的인 求心力보다는 派爭, 軍亂, 政變, 王后 殺害 事件, 經濟的 破綻 등 遠心力이 더 컸고, 求心力을 잃은 政府는 親淸, 親日, 親露의 路線을 右往左往하였고, 國王이 外國公使館으로 避身해야할 처지에 이르렀었다. 그리고 끝내는 外力의 攻勢, 內的脆弱으로 因하여 Hartshorne의 이른바 存在理由를 發見치 못한 가운데 日本에게 併合되고 말았다.

4) 太平洋 戰爭(1941~45)當時

① 日本 1927年 7月, 內閣總理大臣 田中義一이 天皇에게 낸 奏書는 日本의 大陸政策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i) 中國을 征服키 위해서는 먼저 滿洲, 蒙古를 征服해야 한다.

ii) 中國征服에 成功하면 Asia와 南洋諸國이 日本에 降服할 것이다.

iii) 그러므로 最善의 政策은 먼저 滿蒙을 掌握하고 基地化하여, 中國의 餘地部分으로 浸透하여야 한다.

iv) 이렇게 해서 中國을 손에 넣으면, 印度, 동남아시아 群島, 小 Asia, 中央 Asia, 그리고 全 Europe까지도 征服할 수 있다[48].

이 計劃은 滿洲事變(1931. 9)으로 着手되었다. 이 事變은 1930年을 前後한 經濟恐慌과 때를 같이 하였다. 이때부터 日本은 其間의 韓國增米計劃을 中斷하고 韓國北部에 重工業建設策을 수립하는 등, 對韓 地理的 槪念은 食糧 原料產地에서 大陸前進 兵站基地로 바꾸기 시작하였다[49].

日本의 大陸侵略 遂行上 韓國은 그 背後에 位置하고 있어서 軍需物資供給의 據點으로 決定되었다. 이는 實質的이고 本格的인 大陸基地(mainland base)機能을 韓半島에 賦與한 結果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膨脹主義를 合理化하려는 運動으로서 所謂 大東亞共榮圈論을 폈다. 內閣總理大臣 近衛文磨呂가 發表한 大東亞의 新秩序(new order)를 보면;

i) 日本 政策의 根本目的은 八紘一宇 精神에 符合토록 世界平和를 確立하는 데 있다.

ii) 이 첫 段階가 바로 日本, 滿洲, 中國을 包含하는 지역에 하나의 新秩序를 建設하는 것이다[50].

이 新秩序가 정말 共存共榮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은 論外로 하고라도, 그 範圍가 日本, 滿洲, 中國을 包含한 地域에서 Siberia 北端—New Zealand—Arabia 半島의 Aden을 連結하는 三角形內의 地域[51]으로 擴大되었다는 데 注目할 만하다. 위의 大陸政策實踐을 위해 1941年 12月에는 Philippines과 眞珠灣을 攻擊하였다.

② 美國, 소련, 38線의 決定 太平洋 戰爭 直前 美國은 Guam島 要塞化를 否決시킬 程度로 戰略上으로는 極東에 대해 無關心하였다. 이런 가운데 意外로 眞珠灣奇襲을 당하였고, 이것이 發展되어 美國이 戰爭에 휘몰리게 되었다. 1945年 7年 26日의 Potsdam宣言에는 對日降服要求와 降服後의 對日政策이 採擇되었다. 8月 6日에는 廣島에 原子爆彈이 投下되어서 戰爭은 急速度로 終結되었다. 8月 8日에는 소聯이 對日宣戰布告를 했고, 12日에는 이미 韓國의 羅津, 淸津 등에 上陸 占領하였다. 15日에는 日本의 天皇이 終戰詔勅을 내려짐으로써 4年間의 太平洋戰爭이 聯合國의 勝利로 끝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戰爭의 終結로 韓國에 空間變化上 두 가지의 重大한 結果를 招來하였다. 그 하나는 植民地에서 解放을 가져왔고 다른 하나는 38線이라는 境界線이 決定(delimitation)된 點이다. 前者는 國家의 再生(reproduction of a state)인데 대해서 後者는 i) 38線이 國境線機能을 가져서 1860年 Russia와의 國境相接以來 固定되어온 空間關係를 變化시켰다는 點과 ii) 이에 依한 分斷으로 外勢에게 그 南北의 意味가 各各 달라졌다는 데 큰 意義가 있다.

소련軍의 韓國進入에 唐慌한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美國이었다. Yalta 會談 前부터 美國은 一個國에 의한 韓國占領은, 韓國과 그 隣接國(特히 中·소)과의 關係에서 볼 때, 危險性을 內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共同占據·管理를 摸索해 왔다[52]. 反面, 蘇聯은 美國의 意圖와는 달리 急進的으로 南下하여 全半島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蘇聯에게 있어서 이는 40年만에 온 極東에서의 南下 및 海洋進出의 좋은 機會이었다. 美國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막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韓國에 上陸할 準備도 없었으며, 더우기 韓國에는 美軍兵力도 없었는 데다가 너무 먼 거리이어서 이

48) "The Tanaka Memorial, Presented to the Emperor of Japan on July 25, 1927 by Premier Tanaka, Cutlining the Positive Policy in Manchuria," *The Clash of Political Ideas* (Chandler selected and annotated) New York, 1957, pp.235~239. 49) 朝鮮의 兵站基地論은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朝鮮支部編, 朝鮮經濟年報 昭和十四年版, 東京, 1939, pp.399~408 참조. 50) Konoye's Announcement, Aug.1, 1940. from *Geopolitics in Principles and Practice*(Fifield and other), New York, 1944, p.117. 51) 影山哲夫, 熱帶と 熱帶人の 研究, 日本講演, No. 651, 東京, 1942, pp.4~5. 52) 合同通信社譯編, 얄타 秘密協定 美國務省發表全文, 서울, 1956, pp.564~567.

들을 輸送하려면 時間과 多數의 船舶이 必要하였다[53]. 그 當時 美國에는 그에 必要한 充分한 배를 極東에 갖추지 못하였다[54]. 이러한 形便에서 美國側이 먼저 38線을 提案하였다[55].

이처럼 日本軍의 降服을 받기 위한 美·소의 臨時占領分界線이 當初意圖와는 달리 "蘇聯이 38線을 永久分割線(permanent dividing line)으로 取扱하기 始作"[56]함으로써 兩國間의 外交接觸의 失敗로 半永久的인 分割線으로 固定되어 버렸다(Fig. 6).

4) 韓國事變(1950~53)當時

① **蘇聯** 蘇聯은 1948年 9月에 北韓에 所謂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建立하였고, 以後 大韓民國을 侵略할 만한 軍隊를 養成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시아의 美國勢力이 가장 두려웠으나, 美國이 1949年 6月에 最後의 占領軍이 南韓에서 撤收하였고, 1950年 1月에 美國의 太平洋 防禦線에서 韓國이 除外되었다는 發表를 보고 蘇聯은 큰 期待를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곧 同族相爭의 方法으로 韓半島의 赤化에 着手하였다(1950. 6. 25).

蘇聯의 半島赤化理由는 Crane Brinton에 依하면 侵略類型에는 i) 宣傳 ii) 浸透政策 및 衛星國化 iii) 隣接國의 同盟國化 iv) 其他 革命 등 不規則한 것의 4가지가 있는데[57] 蘇聯은 이 類型들을 모두 取하면서도 特히 ii)의 方法에 置重하였다. 그리고 政策完遂를 위하여 世界를 地域上으로 3개로 區分設定하였다.

i) 內部地帶(inner zone)~소聯自體

ii) 中間地帶(middle zone)~內部地帶의 周邊에 있는 帶上地帶(belt) 또는 遮斷地(cordon sanitaire), 이에 屬하는 나라로서 Poland, 東獨, Czechoslovakia, Rumania, Bulgaria, Albania, 蒙古, 北韓 등이 이에 屬한다.

iii) 外部地帶(outer zone)~世界의 나머지 나라들[58].

위 地域方法에서도, 蘇聯은 中間地域 獲得에 힘을 기울였다. 內部地帶로서의 自國 保護를 위하여 周圍에 衛星國을 多數 세워 이들로 하여금 中間地帶를 삼아 遮斷地 役割을 하게 하였다. 特히 2次大戰을 前後하여 Europe에서는 獨逸과 英國, 아시아에서는 日本과 美國이 威脅的인 存在이었다. 따라서 前面에 防牌가 必要하였고, 이것은 衛星國 形態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蘇聯은 韓半島 全域을 美國과 將次는 日本에 대한 防衛前地로서, 나아가서는 勢力擴大의 據點으로 생각해 오던 차에 美國이 撤回政策(withdrawal policy)을 씀으로써 南侵에 着手하게 되었다.

現在로는 北韓이나 中共이 모두 理念的으로 共產主義이어서 美國이 北極海, Bering海, Okhotsk쪽에서 先攻을 取하지 않는 限 極東 防衛上에는 危險性이 거의 없다.

② **中共** 中共은 國民黨의 沒落期間(1947~49) 동안 農民의 支持와 軍事力의 確保로 1949年 10月에는 政權(中華人民共和國)을 樹立하기에 이르렀다. 中國本土를 掌握한 中共은 强力한 共產獨裁政治로 統一을 成就하였다. 이 일은 前日의 明·淸의 統一, 强大化와 韓國과의 關係를 回顧하게 하는 重大事件이었다. 그러나, 1950年까지는 自國內 事情으로 積極性을 보일 수 없는 處地이었다. 그러다가, 1950年 10月에 UN軍이 北韓地域을 거의 占據하여 大韓民國에 依한 民主統一이 이루어지려는 무렵, 지난날의 壬午軍亂, 淸日戰爭 때처럼 中共은 軍事 介入을 敢行하였다. 北韓과 空間的 相接(spatial or geographical contiguity)을 이루고 있는 中共의 安全은 北韓의 存立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다[59]. 境界線學上으로 볼 때 邊境에 友好的인 國家를 갖는 것이 安定된 境界線을 維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은 理念對立이 甚한 오늘날에는 더욱 切實히 要望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事變 때 中共은 北韓만이라도 友好國으로 지켜주어, 邊方을 安全하게 하는 同時에 그들의 緩衝地로 삼으려 하였던 것이다.

이 參戰으로써 中共은 北韓에 대하여 새로운 保護者가 되었고, 以後 오늘날까지 傳統的인 韓中關係 즉 淸日戰爭以前과 같은 韓國에 對하여 宗主的인 關係를 再構築하는 데 野望을 達成하였다.

③ **美國** 1950年 事變以前까지도, 美國은 韓國을 valence가 낮은 地域으로 생각하였다. 비록 2次大戰終末에 韓半島에서 蘇聯의 南下를 막으려고 努力하였으나 그 後에도 不必要한 負擔인 韓國에서 適當한 機會에 물러서려고 하였다. 그 實證으로 Asia 大陸의 一端인 韓半島보다는 차라리 日本에 兵力을 주둔시키자는 McArthur및 合同參謀本部의 意見에 따라 Truman

53) 이때 韓國에 가장 가까운 美兵力은 Okinawa에 있었다. Arthur P.Kruse, "Korea," *Military Aspect of World Political Geography*, Book Two (US Air Univ. ed.), Montgomery, 1954, p.861. 54) Memoirs by Harry S.Truman, Vol. Ⅱ. Years of Trial and Hope, 1956, p.317. 55) Idem. 56) Idem. 57) Crane Brinton, "The Pattern of Aggression," op.cit.(Sprout ed.), pp.31~32. 58) John Foster Dulles, "Aims and Methods of Soviet Foreign Policy," Ibid., p.324. 59) *cf.* Jone Bradbury, "Sino-Soviet Competetion in North Korea," 李春基역, "北韓에 있어서의 蘇聯과 中共", 思想界, No.98. 1961. 9, p.133.

大統領과 Acheson 國務長官은 1949年 6月 29日 마지막 占領軍을 南韓서 撤收시켰다.[60] 그리고 1950年 5月 Acheson의 演說內容에는 南韓과 臺灣이 美太平洋防衛線에서 除外되었다.[61] 이 線은 1949年 3月 McAthur가 말한 바 있는 琉球列島—日本列島—Aleutian 列島—Alaska 線과 같은 것이었다. 또 Acheson은 同演說에서 "韓國은 韓國自身의 努力에 의하여 防衛해야한다"[62]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表現은 "美國의 軍事 및 對外政策의 根本課業이 世界環境을 美國을 위해서 維持하는 것[63]이라는 데 基礎를 두고 있기 때문이겠으나, 前日의 經驗에도 不拘하고, 對外 政策 決定 作成上 最高位級의 國務長官이 이와 같이 表明하였다는 것은 韓國에 대하여 큰 價値를 認定치 않는다는 結果이었다.

日本에 대해서는 높은 valence를 賦與한 까닭은 다음과 같은 狀態의 變化 때문이다.

1947年 中國 國民黨 政府가 瓦解되기 前까지는 美國은 中華民國을 積極支援하여 그로 하여금 膨脹하는 共產勢力을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國民黨 政府가 沒落直前으로 들어가자, 1947~48年間에는 支援政策을 버리고, 日本을 極東의 工場(workshop of the Far East)으로 再建하려고 하였다[64](以後 日本은 美國의 主要 同盟國으로 되어 現今에 이르고 있다)

韓國動亂 中에도 美軍高位級들은 "日本을 防衛하기 위해서는 韓國으로부터 名譽롭게 撤收하는 길"을[65]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Truman은 Ridgway 司令官(McAthur 後任)에게 "우리가 追求하는 軍事目標는 韓國에서의 交戰狀態의 終熄, 戰鬪再發防止의 保障"[66]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바로 美國의 願하는 바가 武力統一이 아니라, 1945年 8月의 分割狀態, 즉 以前의 狀態(status quo ante)로의 復舊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Fig. 7)

中共政權의 樹立(1949. 10)과 韓國事變은 美國의 韓國에 대한 생각에 큰 變化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戰略的으로 消耗的이었던 韓半島가 臺灣, 日本과 함께 極東에 있어서의 美國强勢의 保壘(bulwark)로 생각됨으로써 그 valence가 높아졌고, 따라서 美國勢力線이 强力하게 向韓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事變以後 오늘날까지,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38線 分割 當時부터, 韓國은 自體의 重要性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土地가 空間 實在上 i) Asia大陸으로부터 日本을 向해 뻗친 半島이고, ii) Asia大陸을 包圍할 수 있는 弧狀의 땅이기 때문에, 美國에게 重視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現在 韓國은 美國에 依해 어떻게 評價받고 있나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美國의 太平洋基地(Pacific bases)를 보면;

i) 前哨(out post)~南韓, 臺灣

ii) 主要前進 基地(principal advanced bases)~Okinawa

iii) 主要支援基地(main supporting bases)~Marianas

iv) 2次基地(second bases)~日本 Philippines

v) 後位基地(back up bases)~Aleutian 列島 Hawaii[67]

美極東政策이 韓國, 臺灣, Okinawa, 日本에 대해 重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美國 11人委員會의 發表文 中, "美國의 極東政策은 日本과 經濟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 最大의 協助를 해야 하며, 大韓民國과 自由中國을 繼續 援助하여야 한다"[68]는 內容으로도 뒷받침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基地配置는 그 基地들이 美本土로부터 멀수록 自國이 安全하다고 하는 防衛周圍(perimeter of defense)槪念에서 導出된 것인데[69], 그 中 南韓과 臺灣은 함께 美國防衛의 前哨가 되고 있다 (Fig. 8). 前과 달리 이렇게 생각된 것은, 戰略作成(strategy-making)에 있어서 南韓의 現存 狀態와 空間關係에 立脚해서, 美國이 可能한 最善의 地理的 槪念을 韓國土地에 展開한 結果이다.

(2) 空間變化의 期間 區分

위의 考察로써 諸國의 韓國에 대한 地理的 槪念 變化의 連續을 다음과 같이 抽出할 수 있다. (Fig. 9)

1) 中國側의 境遇

① 1894年 淸日戰爭까지; 從屬國으로서 自國을 위한 하나의 防衛前地

② 1895年, 淸日戰爭後; 韓國서 退却

③ 1950年 10月, UN軍의 北韓進擊以後; 最小限 北韓만이라도 防衛前地

60) Richard W.Leopold, The Growth of American Foreign Policy, A History. 李普珩 外 역, 美國政治外交史, 서울, 1968, pp.779~780. 61) Idem., 그 외에 이 問題를 취급한 것으로는 Henry A.Kissinger,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崔永斗 外 역, 核武器와 外交政策, 서울, 1958, pp.53~63. 〈韓國動亂 I〉. Max Beloff, Soviet Policy in the Far East, 嚴永植역, 蘇聯의 極東政策, 서울, 1960, pp.159~172, 〈韓國戰爭의 根源〉 등이 있다. 62) Ibid., p.169. 63) Max F. Milikan and W.W.Rostow, *A Proposal, Key to an Effective Foreign Policy*, New York, 1957, p.130. 64) *cf.*H.J. Wood and Charles A.Fisher, op.cit., p.333. 65) Memoirs by Harry S.Truman, p.432. 66) Ibid., p.458. 67) Hans W.Weigert and Others, op.cit., p.279. 68) 美國11人委員會, "美國의 國家目的", 東亞日報, 1960, 12. 1~2. 이 委員會는 Eisenhower 大統領의 委任을 받아 組織되었음. 69) Hans W.Weigert and Others, op. cit., p.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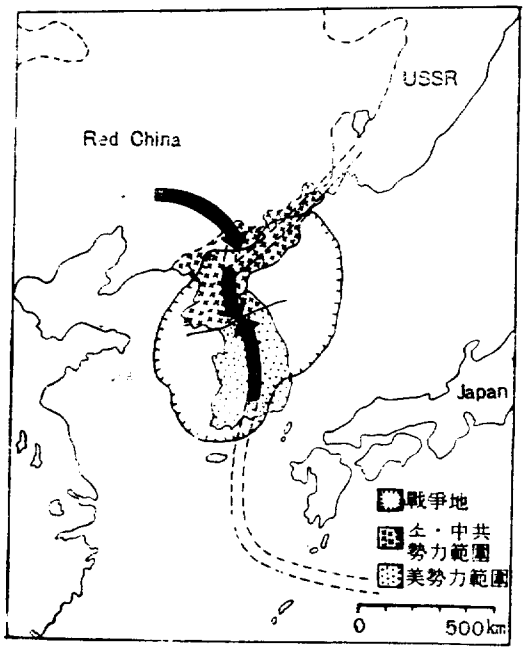


Fig. 7 韓國動亂(1950~53)과 그 後의 韓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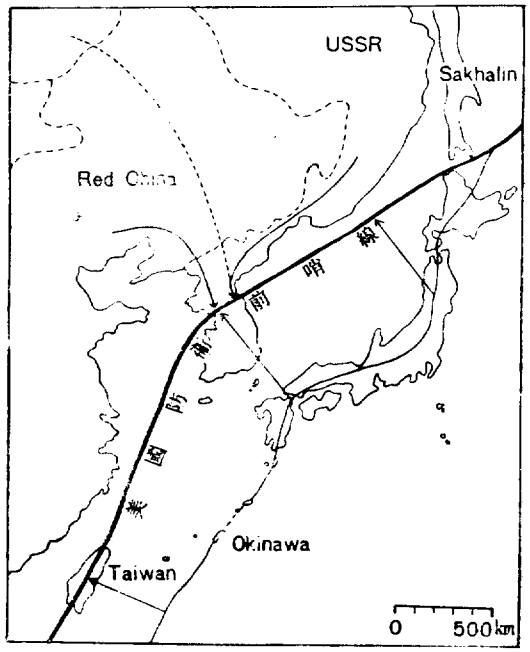


Fig. 8 美國의 基地 前進과 兩勢力間의 對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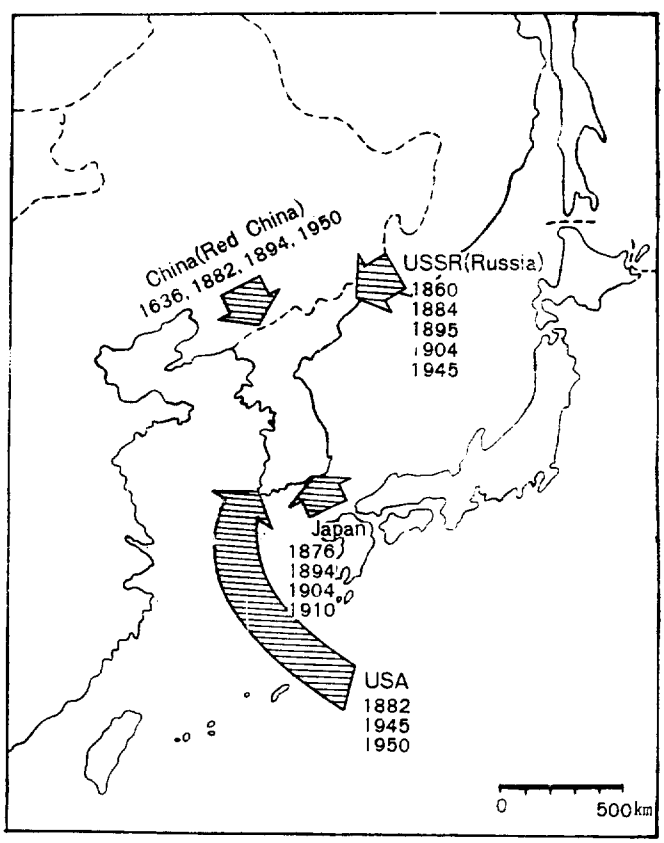


Fig. 9 韓國空間(場)과 外力線의 向韓

中國은 始終 韓國에 대해서 同一槪念을 가져왔다. 오랜 歷史동안 數次 侵攻하여 韓國을 屬國化하려고 했는데 根本的으로 보면, 이는 生活空間으로서의 領土의 擴大가 아니라, 韓國을 自國路線의 國家化함으로써 邊方의 安全을 얻으려 한 것이다. 이는 中國의 政策決定者가 韓半島가 갖고 있는 附屬性, 周邊性에 緣由해서 正價(positive valence)를 주어, 韓國土地自體가 陸海間의 遮斷, 또는 分離機能을 잘 發揮해주도록 바란 結果였다.

2) 日本側의 境遇

① 1876年, 韓日修好條規~1882年, 壬午軍亂; 將次 帝國主義政策의 對象地. 釜山, 仁川, 元山은 이를 위한 上陸據點

② 1882年, 壬午軍亂~1885年, 淸日天津條約; 中·韓·日의 現狀을 維持시킬 地域(status quo area)

③ 1885年, 天津條約~1894年, 淸日戰爭; 滿洲로의 陸橋 또는 디딤돌

④ 1895年, 淸日 戰爭~1904年, 露日戰爭; 自國의 勢力範圍(sphere of influence)인 同時에, 滿洲로의 코리도

⑤ 1905年, 露日戰爭~1931年, 滿洲事變; 코리도的 領土(territory)

⑥ 1931年, 滿洲事變~1945年, 太平洋戰爭終末; 大陸前進兵站基地

⑦ 1945年, 太平洋戰爭後; 韓國서 退却

⑧ 1965年 6月, 韓日條約後; 兩國關係 再開 經濟的 利益地帶

위와 같이 變化시켰거니와, 그 樣相이 發展·擴大的이다. 日本의 經濟成長, 戰爭意圖, 運送手段 및 武器의 發達 등과 竝行하여 바뀌었다. 韓半島의 大陸機會性, 成長尖端性, 結合性에 주로 着眼하여 結合機能을 發揮케 하도록 애썼다.

3) Russia(소련)側의 境遇

① 1884年, 韓露通商修好條約~1894年, 淸日戰爭; 淸日兩國間의 勢力均衡에 依해 現狀을 維持시킬 地域

② 1895年, 淸日戰爭~1898年, 旅·大租借; 海洋機會의 根據地

③ 1898年, 旅大(旅順과 大連)租借~1904年 露日戰爭; 滿洲보다 valence가 낮은 땅. 日本에 대한 防衛前地

④ 1905年, 露日戰爭後; 韓國서 退却

⑤ 1945年 5月, 獨逸敗戰~1950年, 韓國動亂; 韓半島에 再登場, 防衛前地인 同時에 海洋機會의 根據地

⑥ 1951年 6月 Malik의 休戰提案後; 北韓만 防衛前地

日本과는 달리 起伏이 뚜렷하다. 오랫동안 日本과의 對時的인 地位에서 韓國의 結合性, 海洋機會性, 分離性, 周邊性에 주로 着眼해 왔다. 위 중 結合과 分離는 相剋的인 것이어서, 이 兩者를 同一地, 韓半島에서 생각해낸 것은 極東에서의 힘의 盛衰 때문이었다.

4) 美國側의 境遇

美國은 다음과 같이 空間價値(spatial value)를 賦與했다.

① 1882年, 韓美修好通商條約~1904年, 露日戰爭; 無關心, 無利益의 地域

② 1905年, 露日戰爭~1910年 韓日合邦; 國家利益上 별로 價値없는 땅, 代理戰爭의 報答地.

③ 1910年, 韓日合邦~1945年, 太平洋戰爭終末; 亦是 國家利益上 별 價値없는 地域

④ 1945年, 太平洋戰爭終末當時; 蘇聯南進의 遮斷地

⑤ 1945年 8月, 38線決定~1950年, 韓國動亂; 戰略的인 消耗및 負擔地(expendable and burden land)

⑥ 1950年, 韓國動亂後; 自國防衛의 前哨地

傾向이 發展的이기는 하나, 最近에 와서야 積極化되었다. 주로 韓國의 自國으로부터의 遠距離, 中間性, 海洋機會性 및 弧狀에 着眼하고, 이 중에도 特히 最後者로 因해 韓國의 valence는 急上昇했다.

三. 結　論

以上으로 Jones의 Unified Field Theory를 本硏究方法의 一試圖로 擇하여, 우리 나라 空間의 意味變化究明에 適用해 보았거니와, 韓國처럼 外勢와의 空間關係上 特殊性格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外力과 關聯된 空間다이내믹스, 時間과 空間의 二元性 및 場(field)的 性格 등을 考慮하여 硏究하는 것이 妥當한 일이다.

韓國은 1876年以來 近1世紀 동안 周圍强國의 韓國에 대한 環境知覺(milieu apperceiving), 思考, 價値賦與, 經濟發達, 決定, 그리고 이들에 基礎한 運動(movement)의 變化로 인해 時間的으로 數次에 걸쳐서 그 意味가 變해왔다(空間 變化 期間 區分 참조). 이렇게 된 것은 根本에 있어서 認識的 行動의 原理(註 14)와 同地異意의 原理[70]가 作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70) 이 原理는 곧 "土地의 自然的 特性은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各其 서로 다른 意味를 갖고 있다"는 것임. Preston E. James, "The Field of Geography,"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 Syracuse Univ. Press, 1954, p. 13

知覺對象으로서의 韓國의 地理的 實在(geographic realities)는 基礎的으로 重要한 意義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意味變化는 韓國內 및 그 周圍에서의 戰爭들과 密接히 關聯되어 있다.

韓國土地는 經濟性의 높음으로써가 아니라 주로 戰略的인 位置價値로서 보여져 있고, 이런 價値 때문에 極東의 勢力關係 속에서 그 重要性이 認定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中共, 蘇聯, 美國 등의 關心과 이데올로기가 交合하는 곳(melting place)에 있기 때문에 共產側으로서는 東部防衛上, 美國側으로서는 西部防衛上 各各 하나의 要衝地(key area)로 머물러 있다.

그리고, 最近의 傾向이긴 하지만 美國의 對 Asia 政策의 變貌可能性, 所謂 新孤立主義(Neo-isolationism)의 採擇可能性과 東部 및 東南 Asia에서의 國際政治上의 諸情勢變化도 韓國空間變化에 있어서 크게 考慮되어야 할 事項이다. 現段階에서 美國이 곧, 그리고 明確히 政策變更을 擇할 것이냐는 斷定키 어려우나, 적어도 韓國에 대한 關心에는 變함이 없을 것이다.

主題에 대한 지금까지의 考察方法 및 그 展開가 容認될 만하다면, 本稿는 韓國(空間)의 未來를 展望함에 있어서 一助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釜山敎育大學)

A Study of Spatial Variation in Korea: An Application of Unified Field Theory of Political Geography.

Duck Soon Im

Summary: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dynamic "variation in meaning" of Korean space and to interprete it with the concepts of political geography. A space of the earth changes as rapidly as ideas and technologies change; that is, the meanings of geographical reality-political value and implications are continuously changing. In order to interprete the change in Korea, this paper adapted Stephen B. Jones, "Unified Field Theory of political Geography" as a frame of reference for the study.

The simplification, a chain, of Jones, theory is as follows; Political Idea—Decision—Movement—Field—Political Area. Of the five concepts, "field" is a given space to be changed by force-lines from the outside in a given unit of time. The concept of valence-vector relationship being in a "field" was also applied to analyze the historico-geographic events in Korea. Vector is strong in positive valence of field, but either weak or zero in negative.

The fact that vector or "movement" had directed into Korea means valence of this state was positive or attractive for the decision-makers of surrounding great powers. Whereas, negative or indifferent, in the reverse case.

The author considered the space of Korea as a "field" above mentioned. The period of consideration concerned is 1876-1968. Several documents-treaties, agreements, records, and articles wer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this study.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composed of two parts.

1. Korea's realities of space-relation.

Three realities- peninsular reality, spatial intermediate, and fourth arc of East Asia are analyzed for deriving the possible functions from the space of Korea.

2. Spatial variation based on the change of the geographic concepts:

Under this heading, the several concepts, which have been changed through the numerous given units of time, are founded out from the foreign policies and decisions of the surrounding powers and are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sequential war-times.

1) Im-O Year's Army Rebellion(1822)
2) Sino-Japanese War(1894-95)
3) Russo-Japanese War(1904-05)
4) Pacific War(1941-45)
5) Korean War(1950-53)

Space of Korea have been historically changed in

its meaning for surrounding states as follows:

1) For China,
   a glacis,
2) For Japan,
   a future object of imperialism—a status quo area a land bridge to Manchuria—a corridor to Manchuria—a territory—an advanced mainland base for war supplies to continental China—a region of economic interests.
3) For Russia,
   a status quo area—a piont d'appui of maritime opportunity—a glacis—a point d'appui of mariti opportunity—a glacis.
4) For America,
   an area of no interest—a cordon sanitaire against Russian "drive toward South"—a burden land an out post of national defence.

The Chinese decision-makers, imaging the attachmental quality and marginality of Korean space, wanted for this space to perform shutting and seperating function against sea power. Russians wanted Korea's uniting as well as seperating one from the same area. This alternative desires were due to their fluctuation of the strength, rising and falling, in the Far East.

Japanese imperialists, apperceiving the continental opportunity, forward-point-of-growth quality, and uniting character in Korean peninsula, wanted for this peninsula to have uniting function for their own state. American statemen, attrated by the spatial intermediate, maritime opportunity, and are condition of Korea in the Far East, developed the possible shutting function to geographic layout of this state.

The land of Korea have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site, with not economic but strategic value, by the foreign statesmen. This peninsula remains a key area to the two camp's defences, Communist's Eastern and America's Western, because of its being in a meeting-place of continent and seas and of two ideologies.

Today's tendency of the Neo-isolationism i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foreseeing the future variation of space for Korea.